정신개혁과 정법 수호운동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한 해를 돌아보면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불사들이 너무 미흡하고 불교의 위상과 포교를 위해 얼마나 땀을 렸는가 되돌아보면 볼수록 부끄럽기만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는 단 한 번의 행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언제나 외면만을 하고서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제자입니다"라고 어떻게 부끄러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와 승가의 정신 개혁에서부터 불교 전반에 걸친 정법 수호운동이 시작되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인의 목적은 청정심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존경하는 전 세계 불자 여러분. 새해는 청정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살면 행복하고 비부처님 말씀으로 살면 불행합니다. 우주가 성, 주, 괴, 공 하는 것도 평화공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청정한데, 본인이 하는 일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백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천년을 살 것처럼 걱정합니다. 행복은 청정심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화합하고 청정하니 태평성대라 평화로운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서남북 화합 국난극복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산 닭이 때 없이 울더니만 인왕산 호랑이 놀라 뛰어 지축이 흔들리네. 원한은 원한으로 풀지 못하니 삼칸 초옥 태울까 두렵도다. 중생의 윤회는 애욕의 근원이라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결과를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은 내 곁으로부터 살아질 곳을 행하여 변해져 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 무상의 도리를 철저히 깨달아 삼독심을 버리고 선업을 지어 동서남북 화합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난을 면하리로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지혜덕상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부처님 지혜덕상 미묘히 넓고 크다.
우주 안 온갖 사물 낱낱이 통달하고
아득히 멀고 먼 옛날, 미래세(未來世)도 아신다.
법화경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국토 우리가 만들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불자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 품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납시다. 세상사의 무명을 걷어내는 방법은 동체대비와 대자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여 바른 행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나누고 베푸는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국토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부터 마음 모아 일심으로 정진합시다.

태평가 부르는 나날 되도록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風泉警寢聲喧枕 풍천경침성훤침
夜憑晴榻洗塵懷 야빙청탑세진회
野色蒼茫晴入戶 야색창망청입호
江光虛暎晩連宵 강광허영만연소

바람결 샘물 소리는 잠을 깨우면 밤에 선탑 기대어 티끌 마음 씻네. 창망한 들판은 맑게 문으로 들어오고 허공 같은 물빛은 저녁하늘과 하나임을.
희망찬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불자님들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넘쳐나시길 축원 드립니다.

우린 얼마나 자비로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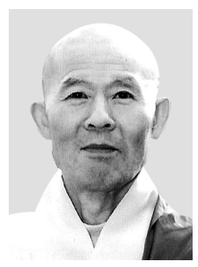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동체대비를 구현해야 한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합시다.

영원한 행복이 불교 목적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새해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불가에서 발심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행한다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실천·생활하는 불자 되길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심즉제불(心卽諸佛) 마음이 부처입니다.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치고 실천으로 보살행을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불법과 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생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행으로 불국토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법 정진해 불교 살리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世間事中 第一功德
上求菩提 下化衆生

세상사 중 모든 일 가운데 제일 공덕이 되는 것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함일세.
오늘날 불교가 후퇴한 것은 우리 모든 불자가 위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정법으로 정진하여 불교를 되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합시다.

팔정도 행하는 한 해로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그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바른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새해가 온다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보리심을 일으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자기성찰과 함께 팔정도를 행하는 진실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술년 새해, 물러서지 않는 용맹으로 파사현정의 기치를 마음에 새겨 정진 또 정진합시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이것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새해 새날을 우리도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자비의 촛불을 밝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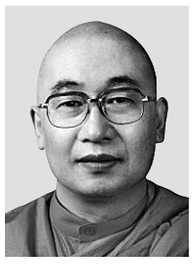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새해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광명이 함께 하기를 발원합니다. 불법의 세계는 중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넓고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새해에는 나만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남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행하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촛불을 영원히 밝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붓다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내가 지어 내가 받는 다는 자작자수(自作自受)의 도리를 말함입니다. 새해에는 탐진치의 혼탁을 여의고, 만족심과 자비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올바른 가르침의 실천은 신심의 크기와 정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위없는 평화를 얻게 됨을 기억합시다.

모든 생명 행복한 무술년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로 남북을 비롯 천지가 한 뿌리요. 배달의 민족은 물론 만 생명이 비로불 전신체로 한 몸인데 어찌 차별과 다툼이 있으랴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남북을 비롯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무술년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남북 평화통일 성취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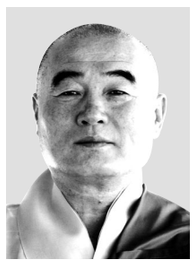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戊戌年 새해에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하사 국운융창과 민족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이 속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無汗不成 有志竟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성공 할 수 없고, 뜻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 露積成海 心外無法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며, 자신의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회장 무산



우리가 생사가 없는 확고한 금강 같은 지혜를 터득할 때 진정한 행복추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에는 태어남도 없고 또한 본래 죽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실상은 영원하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라는 대명제를 깨쳐 본무생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부처님 의지하며 정진하자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새해 아침에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청정한 기운으로 서로의 밝음을 나눕시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만듭니다. 새해에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살면 어떠한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의지하며 올곧게 정진해 나아갑시다.

행복 누리는 안정된 사회 기원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온 국민과 사부대중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나라안팎이 어수선한 시시비비 모두 다 소멸되어 새 희망과 즐거움을 느끼는 보람찬 일들이 국가와 사회에 가득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안애어(慈眼愛語)의 인자한 얼굴과 눈빛, 사랑스러운 말로 행복을 누리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존응화3천년 2018년 1월 1일

마음 밖 따로 구할 것 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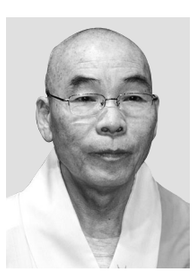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새해의 대일(大日)광명(光明)이 산하대지에 법계 중생들을 향하였습니다. 무술년(戊戌年)에도 한량없이 찾아드는 망념 속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이 본래 진면목으로 수시로 흔들어 놓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겠는가? 이 마음밖에 챙김이 구할 것이 없는데.

자리이타와 정토세상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수연부감미부주(隨緣赴感靡不周)
이항처차보리좌(而恒處此菩提座)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가득하니,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투시었도다. 인연 따라 가지 않은 데 없지만 언제나 보리좌에 항상 계신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화엄경 게송 한 구절을 자비로운 시절인연이 도래한 무술년 새해 첫날 염송해 봅니다.

지난날 묻어두고 새 각오로

(재)한국불교여래종 부종정 법수



무술년 새해를 맞아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극락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지옥입니다. 자기를 찾으면 그것이 참나요, 곧 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 지난 일은 묻어두고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림막 제거해야 정법 보인다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보고 듣는 것이 허환의 티끌이요. 삼계 또한 허공의 꽃이라.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무릇 12지지 중에 개라는 동물은 주인에게 충직하고 의리를 배반하지 않으며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일관성 있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행복과 보람이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화합으로 민족 번영을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불기2562(2018)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인류에 축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선업 지으면 천년의 보배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新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누가 오라 손짓하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왔습니다. 달마조사께서 동토에 온 것은 오로지 한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려 위함입니다. 살아 있을 때 선업을 짓고 좋은 업을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또한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찾는데 전력투구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하나이다.

아미타불 불성은 용광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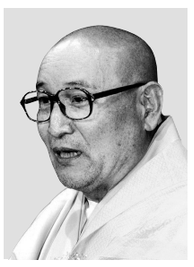


토혈하는, 태양의 혓바닥으로, 닭벼슬이 벌것에 녹아내려 털 빠진, 삽살개 꽁지로, 여명을 짖는다. 그대, 속마음 먼지를 보았는가, 보이는가! 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성은 용광로 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을 넣어 버리면 모두 녹아버립니다.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물건으로 나옵니다. 지난일은 묻어버리고 새로운 밝은 각오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복은 쌓인다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一日行善이면 福雖未至하나 禍自遠矣요. 一日行惡이면 禍雖未至하나 福自遠矣니라.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不見基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은 如刀之石하여 不見基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나 악한 재앙은 멀어진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봄의 풀과 같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복은 날마다 쌓여간다.

원력 실천해야 가피 따른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산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되듯이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쌓여 놀라운 성과물을 이루게 됩니다. 불자님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 가피를 내려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을 세워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할일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찾으면 보이는 것이 길입니다. 새해는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식주(衣食住)와 의식(意識)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깨침이 중요합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요. 기계문명을 만들어 놓고 경쟁과 스트레스만 받는 고도성장의 문명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깨달아 보지 못하면 남과 비교하며 갈등하면서 소가지(스트레스) 피우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견해 얽매임을 타파하고 올바른 도리를 나타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배려하고 이타행(利他行)으로 불교포교에 매진(邁進)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불국토를 이룹시다.

마음은 스스로 깨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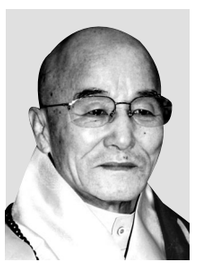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자기의 한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법이다. 한마음 밝게 가지면 세계 일화가 만발하여 정토의 길이 열리고 지구촌 중생이 너와 내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해탈의 평화세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제법은 모두 인연소생이며 법에 따라서 나고 법에 따라서 가며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無自性)이요, 무거래요, 결국 공(空)인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실천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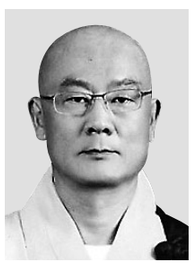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 성취되기를 서원합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망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 하나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밝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벽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해 간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평화 없다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새해 첫 아침은 희망과 평화, 행복의 빛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는 일체를 공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올해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패럴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화와 평등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기도 합니다. 서로 한 발짝 다가가 손을 잡으면 이루지 못할 행복, 이루지 못할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심는 불자 되기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무술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올해에는 베풂의 해로 지냅시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고 깨끗해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또 베푼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내세우는 아상을 없앤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불의 첫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새해 자비로운 마음 많이 내셔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무술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마음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생사 누구도 올 때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음 일어나면 만물 일어난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심생종종법생(心生種種法生)
심멸종종법멸(心滅種種法滅)
약불전법도중생(若不傳法度衆生)
필경무능보은자(畢竟無能報恩者)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는 것이다. 무술년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세상은 항상 시시비비로 들끓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해득실의 속된 물거품이며 풍진속의 사바세계에서 고쳐지지 않는 병폐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햇빛이 들어서 천지가 광명의 세계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성(自性)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합니다. 항상 수행하는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여 옳고 그름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속 진실한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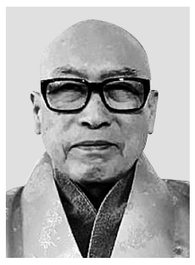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만청



뜨겁게 타오르던 촛불의 열기 아직도 남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마음을 감싸고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불자님들의 마음이 항상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바세계 중생들은 항상 미혹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속에 진실한 행이 같이 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태양 같은 열정으로 새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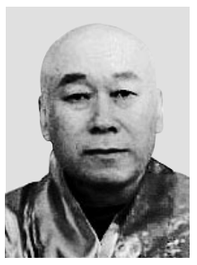
법안조계종 종정 오봉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황금빛 붉은 해가 동녘 하늘을 물들이고 천지를 개벽할 듯 웃음소리 크게 울리니 만상이 깨어나 한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영원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下心만을 탐구하는 한 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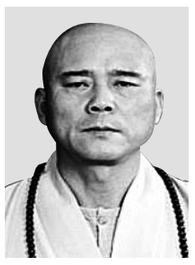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새해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새해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감히 하심(下心)이라 말씀드립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심(下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남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이 하심(下心)만을 탐구하고 행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발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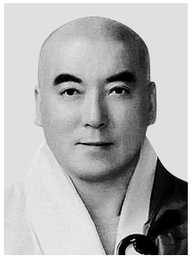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불기2562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혜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온 인류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불자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민의를 세워 새 지도자를 선출한 변혁의 시대에 더욱 큰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관심과 격려를 갖고 새해에는 소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하합니다.

부처님 참 가르침 실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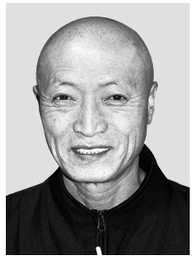
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세상이 올바르고 모든 사람이 평온함을 느낄 때는 우리는 정토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이를 법(法)이 정당하여 모든 이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고 모두가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제 다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화두입니다.

주위 밝혀 불국토 함께 이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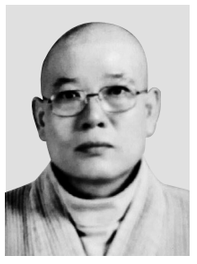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묵은해는 무명과 함께 물러나고 희망의 새해가 밝아 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은 꿈속이니 모두가 법성체요 모든 중생이 부처입니다. 바른 지혜로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새해에도 밝은 희망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밝히고 주위를 밝혀 밝은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 서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자성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생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회장 각성



불교의 진리는 자신에 의한 성불이요,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진하자.

어둠 밝힐 빛은 마음서 비롯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사슴을 쫓는 자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하노니 탐욕이 극에 이르면 곧 밝음이 어두워지니라.

큰 상인은 상품을 과장하게 진열치 않으며 어진 사람은 능함이 많아도 그 재주를 함부로 나타내지 않는다. 고로 사람은 고요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평화를 얻는 지름길이니라.

새해새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평안하게 하리라.

성불자주의 보살행을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우리 도반들은 "연꽃을 묻기 전에 연꽃이 피고 연잎을 묻기 전에 연잎이 되자" 연꽃이란 건강한 정신이요 건강한 육체가 아닐까? 모든 일체법은 인연소생이며, 법에 따라서 나고 법에 따라서 살아지는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새해 무자성의 도리를 구현합시다. 그러하면 무자성이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어 내가 없고 인연에 따라 오가는 성불자주의 보살행을 수행처로 삼아 정진합시다.

